

‘보조금=눈먼 돈?’

광주시 예산지원사업 손본다

광주시가 보조금 횡령단체에 예산 지원을 지속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자 지방보조금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일부를 문제로 삼아 사업 자체가 위탁받고 있어 사업 추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사업자가 예산을 횡령해도 향후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계속 지원해 왔다. 이 때문에 광주시가 보조금 횡령 단체를 차별하기는커녕 지원을 계속하면서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광주시는 올해 보조금 지원사업

횡령 등 비리단체 심의 시 감점 적용 행안부에 지방보조금 규정 강화 요청

심사를 통해 공금 횡령이 발생했던 공예협동조합과 광주미협을 사업 주관단체로 신정했다.

공예협동조합은 이사장이 지난해 보조금 1억2400만원을 횡령해 구속됐고, 광주미협은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아트페어를 위탁 운영하며 1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오는 20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횡령 등의 비리가 발생한 단체는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향후 심의에서도 감점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보조금 환수와 사업 취소 등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 강화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지방보조금 관리제도 개정한다.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업이 안전으로 접수될 경우 심의위원을 제척키로 했다.

사업자가 보조금을 접수할 때에는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도록 하고 보조금 사업자의 비리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보조금 비리 단체에 예산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비판에 공감한다”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광주 수돗물 안전합니다

광주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단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찾아가는 현장 수돗물 수질검사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 수돗물 수질검사단은 가정 내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직접 미시는 분위기를 확신시키기 위해 추진한다.

검사는 국제공인 인증기구(KOLAS)가 광주·전남 최초로 시험 인증 기관으로 인정한 광주수질연구소 수질검사 전문기가 담당한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직접 방문해 물을 받아 탁수 진류 염소량, 수소이온 농도, 구리, 철 함유량 등 5개 항목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측정결과를 현장에서 바로 알려주는 원스톱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검사 대상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이며, 11월까지 5개 지역구에서 월 한차례 실시한다. 회향 세대는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로 신청하면 된다.

3월 지역별 수질검사는 동구 11~12일, 서구 12~13일, 남구 18~19일, 북구 20~21일, 광산구 26~27일 등 순으로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황봉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광주의 수돗물을 음용비율은 7대 톨·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며 “앞으로 수돗물 바로 마시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에도 총 974세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해 수돗물 안전성을 확인하고 겨울철 동파방지법, 수돗물 오염사고 유형별 원인 등 생활정보를 제공했다.

동구 “마을일터에서 꿈 키울 청년을 찾습니다”

광주 동구가 청년일자리 ‘이웃이 있는 마을일터’ 청년활동가 양성 사업에 참여할 지역청년을 찾는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미취업 지역청년 28여 명을 대상으로 동구 소재 다양한 일터에서 일 경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자격은 현재 동구에 거주하며 취·창업을 꿈꾸는 지역청년으로서 만 19세~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청년은 동구 누리집(<http://www.donggu.kr>) ‘고시공고’에서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12일부터 18일까지 이메일 또는 청년체육과(☎08-2242)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박차

광주 서구가 WHO(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조례 제정 등 본격적인 발걸음을 나섰다.

지난달 서구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노년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강·참여·안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수립 및 조사·연구, 분야별 사업, 국제교류 활성화, 모니터단 및 위원회 구성·운영 등이다.

남구, 비만 개선 등 행복한 건강밥상 선보여

광주 남구는 주민들에게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만과 고지혈증 등 각종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특화된 밥상을 소개하기 위해 올해 6차례에 걸쳐 영양교실인 행복한 건강밥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8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11일 오후 2시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주월동과 효덕동에 거주하는 주민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복한 건강밥상 첫 번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은산촌푸드 김영숙 영양사가 강사로 나서며, 그는 이날 비만 개선에 도움이 되는 닭봉단호박조림과 단호박 스프 조리법을 소개한다.

북구, 4차 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 운영

광주 북구가 4차 산업 종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 관심을 쏟고 있다.

북구는 “이달부터 AI(인공지능), AR·VR(증강·가상현실), 드론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4차 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를 본격 운영한다”라고 10일 밝혔다.

광주테크노파크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산업 환경 변화로 융합과 협업이 핵심 솔루션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4차 산업 종소기업이 자체 기술력을 향상하고 제조업과의 융합 과제수행을 통한 신 비즈니스 영역 창출을 위해 민선 7기 북구가 새롭게 내놓은 시책이다.

‘4차 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는 단순 교류회 방식을 탈피, 참여 기업 간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기획하여, 수행과 제별 클러스터 내 소모임을 구성하고 이에 맞춤형으로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광산구 주민리포터단, 상견례 갖고 본격 활동

7일 광주 광산구 주민리포터단이 구청에서 상견례를 갖고 사람·마을·지역 소식을 다룬 콘텐츠로 알리는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이날 상견례는 주민리포터들의 활동 방법을 안내하고, 리포터들 간 소통 커뮤니티 구축을 위해 마련된 자리. 광산구는 1~2월 접수된 총 36명의 지원자 중 연령·거주지 등을 고려해 20명의 주민리포터를 선발했다.

이번 제5기 주민리포터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1년 동안 활동한다. 글·사진·칼럼·영상 등 자유로운 콘텐츠로 광산구 서브포털 ‘부케더 광산톡(news.gwangsan.go.kr)’을 쓰운다. 특히, 올해는 광산구 기획 뉴스리포터로도 출연하는 등 활동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임형택 기자



보해복분자주 日식음료박람회서 각광

아사히맥주와도 협업 논의

보해양조는 10일 보해복분자주가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19 일본 식품·음료박람회(FOODEX)’에 출품돼 전 세계 바이어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해복분자는 현재 미국과 중

국, 말레이시아 등 20개 국가에서 판매중이며 이번 2019 일본 푸데스를 통해 해외시장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44회째를 맞는 푸데스는 전 세계 80여개국 8만여명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식품음료 박람회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열린 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 위원은 10일 프랑스 수영연맹 관계자들이 최근 조직위를 방문해 각각 현황 등을 살폈으며 각 경기장 방문시 선수들의 동선과 경기 운영 방법 등을 꼼꼼히 체크했다.

수영 강국인 영국과 미국 수영연맹 관계자들도 4월과 5월에 각각 광

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광주수영대회 봄 업’…세계 각국 수영연맹 방문 러시

오는 7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앞두고 세계 각국 수영연맹 관계자들의 광주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프랑스 수영연맹의 미르탱 마르탱(Martin MARTIN) 경기부부장과 경기 매니저들이 최근 조직위를 방문해 각 분야별 실무 담당자와 협의를 갖고 수영대회가 열리는 선수촌과 경기장 현장 등을 점검했다.

수영 강국인 영국과 미국 수영연맹 관계자들도 4월과 5월에 각각 광

주를 방문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 인 설립
- 양도상속증여
- 기업 진단

- 기 장 대 리
- 건설면허신청
- 외 부 감 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석면 해체공사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석면조사

측량 >> 토 목 설 계 >> 도 시 계 획
토목공사>>창업상담>>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법 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올부즈만 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 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 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세상의 뉴스를 아낌없이…

湖南新聞이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 구독신청 · 광고문의 : 062-224-5800

• 기사제보 ·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